

보도자료

보도 희망일	제한없음(즉시)		
배포일	2023. 6. 12.(월)	홍보담당	기획처 홍보팀(880-9072, 5054)
담당기관	글로벌사회공헌단	문의	김지수(880-2989)

서울대 학생사회공헌단, 의류 나눔 및 패스트패션 관련 사회공헌 캠페인 진행

-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(단장 김태균) 내 학생사회공헌단 ‘순환패션’ 팀이 의류나눔 및 패스트패션 인식개선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.
- 학생사회공헌단 ‘순환패션’ 팀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서울대학교와 낙성대공원에서 의류나눔 및 패스트패션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. 의류나눔, O/X 퀴즈, 업사이클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캠페인 부스를 운영했는데, 회차마다 수십 명의 서울대 구성원과 관악구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.
- 의류나눔 부스는 사전에 기부받은 의류를 세탁하여 필요한 사람이 직접 골라서 가져가는 공간으로 조성하고, 누군가에게는 쓰임이 다한 의류가 새로운 주인을 만나 쓰임새를 얻으며 의류 폐기물을 줄인다는 점을 공유했다. O/X 퀴즈 부스에서는 패스트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에 관한 간단한 퀴즈를 통해 참여자들이 패스트패션의 환경오염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. 업사이클 체험 부스에서는 기부받은 의류 중 나눔에 적합하지 않은 의류를 재료로 활용하여 반려동물 터그, 파우치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.

- 의류나눔 및 패스트패션 사회공헌 캠페인은 패스트패션이 초래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초점을 두었다. 부스에 참여해 업사이클 파우치를 만든 한 시민은 “매체로만 보던 업사이클 제품 만들기를 일상에서 접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” 고 소감을 전했다. 캠페인을 진행한 ‘순환패션’ 팀장인 배현진(경제학부)씨는 “순환패션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보람찬 활동이었다. 인식 변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패스트패션의 산업 구조가 변화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” 며 소망을 표했다.

-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은 2013년 2월 창설된 이래 대학 내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허브조직으로, 사회적 책임성과 혁신적 전문성을 토대로 사회공헌 교육과 국내외 사회공헌 실천을 해오고 있다. 학생사회공헌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사회서비스센터(880-2253) 또는 글로벌사회공헌단 홈페이지 (<https://snusr.snu.ac.kr/activities/student-council>)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.